



#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라

Lead the **Digital Transformation**



비즈니스 핵심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02
미국 시장의 데이터 보안 방식을 바꾼다	05
말레이시아 정부, 디지털문서관리 대대적 혁신	06
효과적인 데이터 보안, 첫 걸음은 '식별과 분류'	08
문서관리의 혁명 '랩소디'	10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진화한 '스패로우'	1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어떻게 하나	14



##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화두다. 전세계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소프트웨어 기업인 파수닷컴은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파수닷컴은 지난 5월 16일 개최한 11번째 연례 고객 행사인 ‘파수 디지털 인텔리전스(FDI) 2018’에서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라(Lead the Digital Transformation)’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와 관련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인공지능·머신러닝,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잘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수닷컴은 고객이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파수닷컴은 지난 5월 16일 개최한 11번째 연례 고객 행사인 ‘파수 디지털 인텔리전스(FDI 2018)’에서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라(Lead the Digital Transformation)’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와 관련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

## '보안성'과 '생산성' 모두 잡는다

파수닷컴의 사업 영역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영역 두 가지다. 그리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로 상충되는 이슈라 볼 수 있는 보안성과 생산성을 모두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창립 이후 꾸준히 주력해온 데이터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충족하는 솔루션 라인업을 완성한 단계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형데이터의 보안성은 문서보안(DRM)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과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파수 리스크 뷰', 최근 새롭게 선보인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가 담당한다.

차세대 디지털 문서관리 솔루션인 '랩소디'가 보안성과 생산성을 모두 충족한다. '랩소디'는 효율적인 문서 공유와 버전관리로 중복문서를 줄여 업무생산성을 높인다. 보안이 필요한 문서 자산을 생성 시점부터 보호하며, 문서 사용내역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파수닷컴은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외부협업을 가능케하는 '랩소디 에코'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문서의 저장 위치나 전달 경로에 관계없이 공유한 문서를 중심으로 쉽고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내·외부 각 채널로 전달한 파일을 워크그룹별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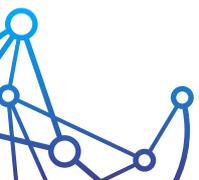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비식별화로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널리틱DI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생성하는 디지털 메모·노트까지도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디지털페이지'도 데이터 분야의 구성요소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소스코드와 바이너리코드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재정비해 구축했다.

데브섹옵스(DevSecOps) 구현이 가능한 머신러닝 기반의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 플랫폼인 '스패로우'는 ▲정적분석(시큐어코딩 '스패로우 SAST') ▲동적분석(웹 취약점 점검 '스패로우 DAST') ▲자가방어(스패로우 RASP)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오픈소스까지 관리할 수 있다.

'스패로우'는 간편한 가입과 결제만으로 사용한만큼만 비용을 지불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스패로우 온 클라우드'로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조 대표는 "고객의 중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클라우드에 올려 자칫 우려할 수 있는 소스코드 외부 유출 우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했다"라면서 "계정권한은 고객 외에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일수 스패로우 대표는 "인프라서비스(IaaS)를 기반으로 사용 고객이 특정 공간을 할당받아 소프트웨어서비스(SaaS)를 구동시키는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무단 접속을 원천 방지한다.

'스패로우 온 클라우드'는 고객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고객에게 슈퍼 어드민(Super Admin) 권한을 제공해 소스코드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파수닷컴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페이지와 스패로우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도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페이지 인텔리전스 리서치센터 세 곳으로 분리, 개편했다.

조 대표는 "데이터 영역에서는 보안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Get Control of your unstructured Data(비정형 데이터를 제어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새롭게 내걸었다"라면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IoT 환경은 이른바 'Internet of Document(문서인터넷)'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바이스와 다양한 문서파일과 메시지가 생성된다. 사용자들은 저장소(Repository)나 다양한 채널에서 이같은 데이터를 이용한다. 데이터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관리하기 복잡해질 것이다. 이 때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캐치프레이즈로는 "APP(Analyze, Predict, and Protect) Your Application(애플리케이션을 분석, 예측, 보호하라)"이라고 소개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풀이했다. 





# Fasoo

## 미국 시장의 데이터 보안 방식을 바꾼다



"그동안 막대한 보안 투자를 했음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가 전례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채택해온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소 중심의 데이터 보안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존 헤링(John Herring) 파수 미국법인 대표는 'FDI 2018'에 연사로 참가해 미국 데이터 보안 시장 현황과 함께 최근 감지되는 변화 흐름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경계와 장소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보안 방식을 데이터에 그대로 사용해 왔다"라며 "데이터가 특정 장소를 떠나고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이같은 방식은 점점 소용이 없어지고 있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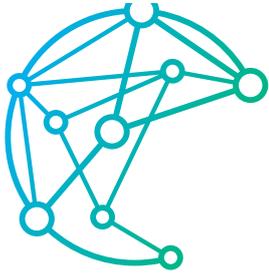
헤링 대표는 "이제는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데이터 중심 보안' 방식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업의 최고보안책임자(CISO)나 정보관리 책임자(CIO)들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미국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경영진이 바뀌고 있다. CISO, CIO뿐만 아니라 현업부서(LoB) 책임자들이 직접 신경쓰고 있는 추세다"라며 "데이터 업무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고, 이사회 차원에서 데이터를 담당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헤링 대표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제어하고 분석해야 하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 인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파수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상쇄되는 이슈인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면서 유연하고 다이내믹한 해결책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보안에 있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있다"고 평가하면서 "파수는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제어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그동안 막대한 보안 투자를 했음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가 전례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채택해온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소 중심의 데이터 보안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정부, 디지털문서관리 대대적 혁신

### 파수 EDRM으로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자정부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해 공공 서비스 행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리실 산하 부처인 MAMPU (Malaysian Administrative Modernis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Unit) 가 주도한다.

파수닷컴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인 디지털문서관리시스템(DDMS) 구축 사업에 문서보안 솔루션을 공급했다.

이 사업 주관사(PM)인 크레스트 인포솔루션즈(Crest Infosolutions)의 히만트 프라사드 최고경영자(CEO)는 'FDI 2018'에 나와 "MAMPU가 추진하는 DDMS 구축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모든 정부부처 문서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사례"라면서 "디지털 혁신으로 정부는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DDMS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 2016년 9월 정부부처 한 곳에 먼저 구축했다. 1000명의 공무원이 생성·보유하고 있던 10만개의 문서가 대상이 됐다. 3개월 만인 2016년 12월에는 34개 부처 3000명 사용자, 120만 문서를 포괄해 적용됐고, 작년 말에는 68개 부처, 4만8000명의 사용자, 270만개의 문서로 확장됐다.

올 연말까지 100개 부처 7만5000명 사용자, 2020년까지 200개 부처 20만명의 사용자를 포괄하는 DDMS가 구축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160만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단일한 DDMS를 기반으로 문서를 사용·저장·관리하게 된다.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사용자들이 디지털문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프라사드 CEO는 "사용자들의 편리한 사용성은 물론,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단일 저장소(Repository)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면서 "모든 기록물이 담기는 저장소인 '알프레스코 콘텐츠관리시스템(ECM)'에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EDRM)인 '파수 시큐어 도큐먼트(FSD)'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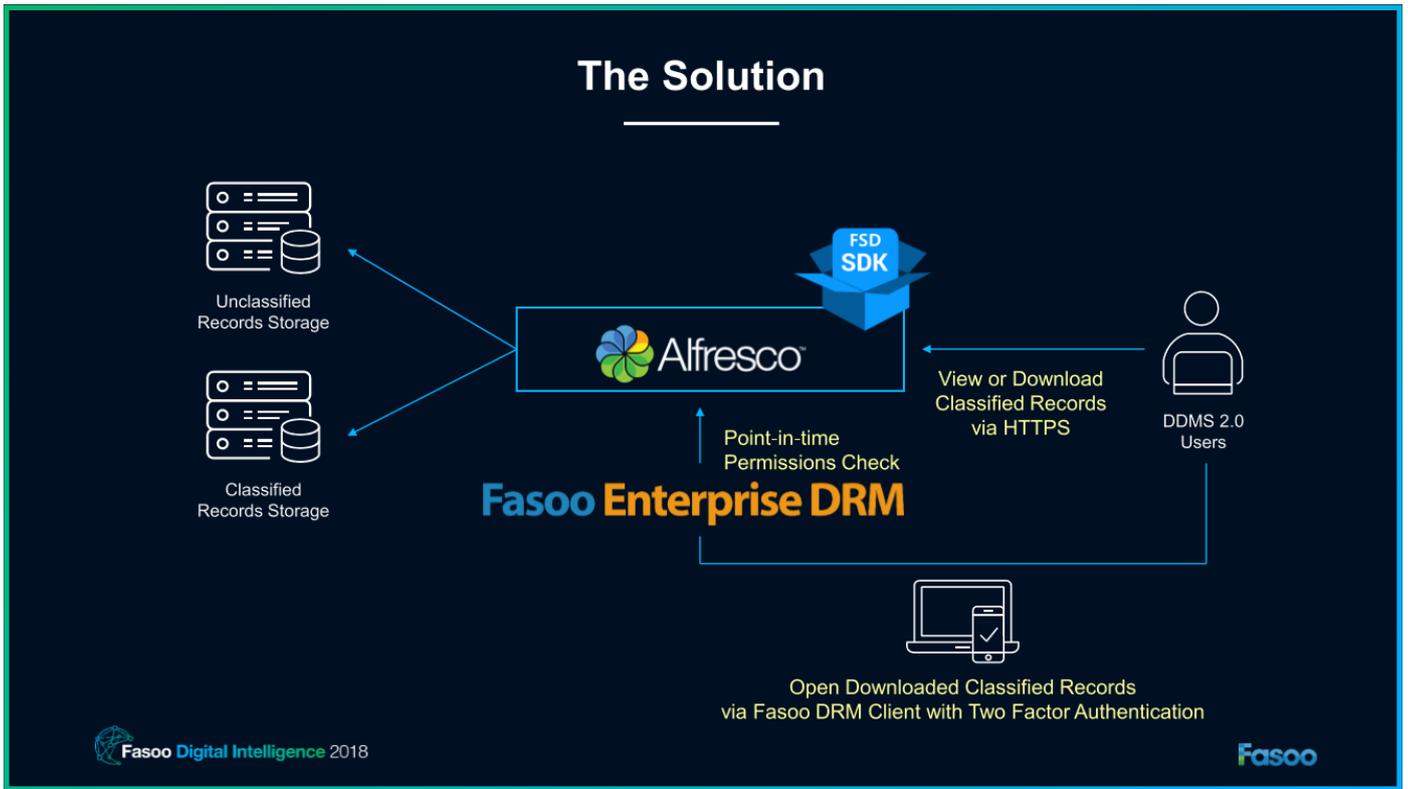
파수 EDRM은 중요기록물로 분류된 데이터가 저장돼 있거나 이동 중일 때 이를 암호화해 보호한다. 사용자가 접근해 열람하려는 시점에 승인권한을 확인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 디지털문서를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AES256비트(bit)로 암호화하고, 해당 시점에 바로 권한을 확인한다. 스크린 워터마크와 캡처 방지 기능을 적용해 모바일 기기로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ISO 16175를 준수해 문서·기록물 관리 국제표준 컴플라이언스도 준수한다.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FDS와 연동해 이중인증체계도 적용했다.

프라사드 CEO는 "파수 EDRM 기술로 데이터 보안성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도 사용편의성(usability)까지 확보해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됐다. EDRM을 저장소에 적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교육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파수 EDM이 적용된 DDMS의 차별점으로는 “중앙화된 시스템이자 단일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관리하기 쉽다. ISO 표준 컴플라이언스와 자체 규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을 함께 활용해 총소유비용(TCO)이 낮다”라면서 “확장성도 커 현재 70개 부처 5만명이 사용 중이며, 최종 160만명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현재 파수 EDM은 중요문서에 적용돼 있다. 올해까지 100개 기관 5000명의 사용

자를 대상으로 적용돼 있는데 2020년까지 파수 EDM 사용자는 200개 기관, 2만명의 사용자로 늘어나게 된다.

파수닷컴은 이 사업에 영구 라이선스 방식이 아닌 연간 라이선스 형태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적용했다. 사용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도 커지게 된다.

프라사드 CEO는 “IT 변혁을 주도하는 MAMPU 사업이 파수와 함께 지원한 첫 고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승인을 완료하면 새로운 마일스톤(milestone)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공공 부문뿐 아니라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도 중요한 문서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EDM 적용 방안을 소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By**





# 효과적인 데이터 보안, 첫 걸음은 '식별과 분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활동에서 출발한다.

기업 내에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통제되고는 있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없다면 데이터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도, 수많은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법규정을 지킬 수도 없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로 생성되고 있다. 모든 기업에서 비정형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 비정형 데이터들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지만 위치를 파악할 수 없거나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저장되고 가공되며 연동·파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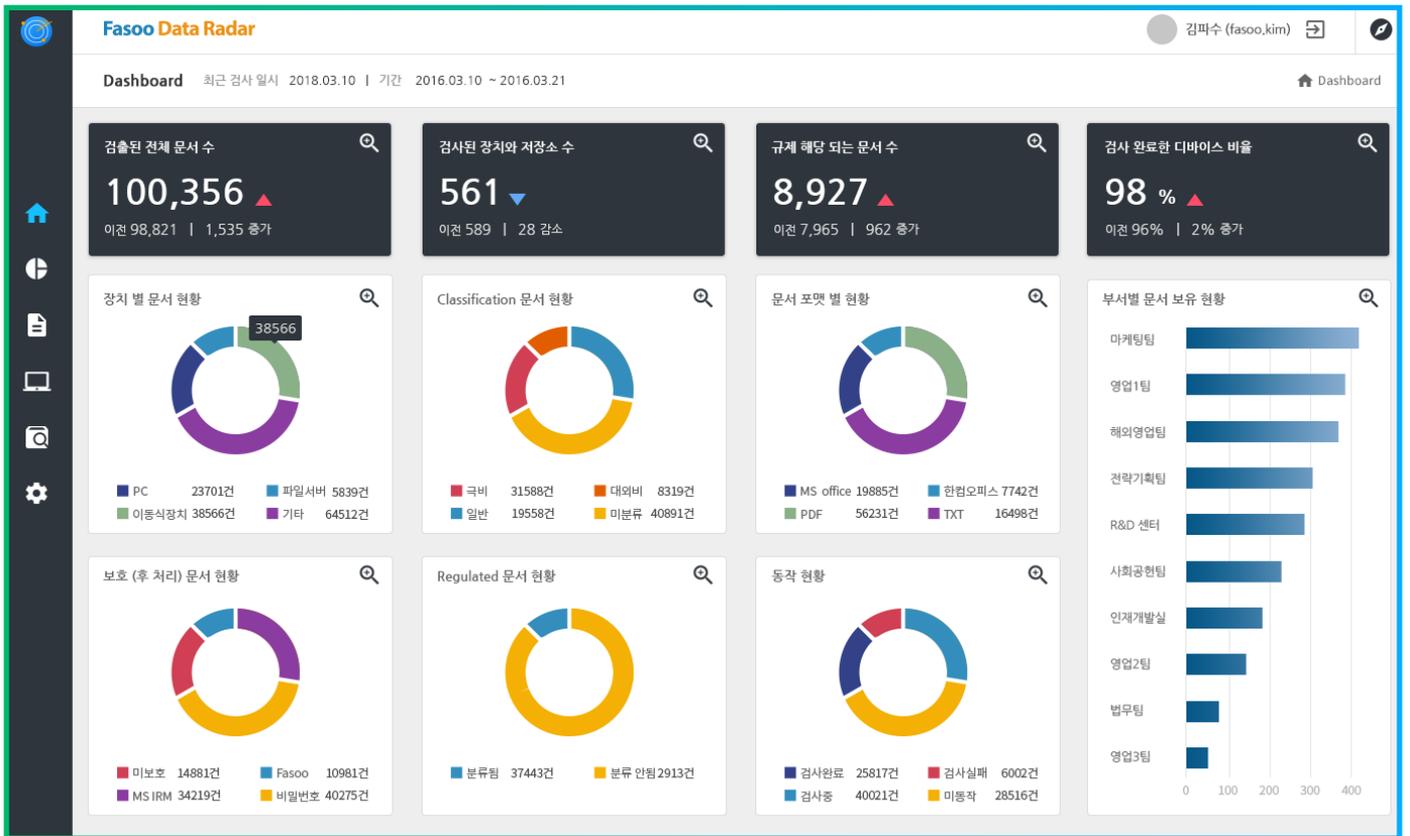
지난 18년간 데이터 보안에 주력해온 파수닷컴은 기업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분류해 중요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Fasoo Data Radar)'를 선보였다.

'파수 데이터 레이더'는 먼저 PC나 서버에 존재하는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탐지·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한다. 중요도에 따라 허가 권한을 통제하고 사용 용도를 추적하며 취약점에 맞춰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

식별, 분류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현황을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분류한 데이터를 지속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서추적을 위한 일반문서 내 마킹은 물론,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접근제어 및 다양한 권한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DRM 옵션까지 제공한다.





식별·분류 정책 설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 뉴욕주의 보안규제인 NYDFS 23를 비롯해 기업별 자체 보안 규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 탐지는 PC, 서버뿐 아니라 앞으로 클라우드, 모바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분류는 정규식 키워드나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법으로 사용자가 손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 수동 분류도 지원한다. 분류 대상 데이터는 암호화(DRM)돼 있거나 평문 데이터 모두 가능하다. 오피스 문서 외에도 다양한 형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류된 데이터 중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PC 저장을 차단한 뒤 삭제, 격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암호화와 다양한 마킹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현황 시각화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된다. 저장돼 있는 장치별 현황, 중요도에 따른 분류 문서 현황, 문서 포맷별 현황, 보호 문서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며, 개인정보관리대장에 따른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강봉호 파수닷컴 본부장은 "데이터 식별·분류는 개인정보 자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데이터 식별·분류는 데이터 보안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파수닷컴은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기업의 최적화된 데이터 보안 프레임워크의 가장 밑바탕에 안착시켰다"라면서 "데이터를 식별·분류해 데이터를 통제하고, 이같은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용자 행위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중심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 문서관리의 혁명 '랩소디'



기업의 업무는 문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문서를 만들고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이 정보근로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는 항상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 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재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파편화 된다. 또 어떤 문서가 진본이고 어떤 문서가 사본인지 점점 알기 어렵게 되어가고, 같은 문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복사돼 퍼진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편화되고 중복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파수닷컴 '랩소디(Wrapsody)'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자문서관리 플랫폼이다. '랩소디'는 문서마다 개별 아이디(ID)를 부여해 문서가 어디에 있든, 누가 사용하든 하나의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문서의 모든 버전은 '랩소디' 서버가 관리한다. 이용자는 항상 문서의 최종버전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다른 버전의 문서를 볼 일이 없다. 기존 문서의 옛날 버전은 랩소디가 알아서 관리한다. 직원들은 문서의 버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랩소디'는 사내 모든 문서와 연결돼 있다. 문서가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개인PC에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 관리된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자. 경력직 직원이 입사했다. 이 직원이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 아마 전임자가 정리한 문서들이 담긴 USB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직원은 이 USB를 열고 전임자가 하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미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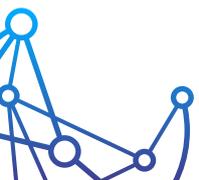
그러나 그 문서들만 보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문서가 생성된 배경이나 상황,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잘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도 후임자가 문서만 보고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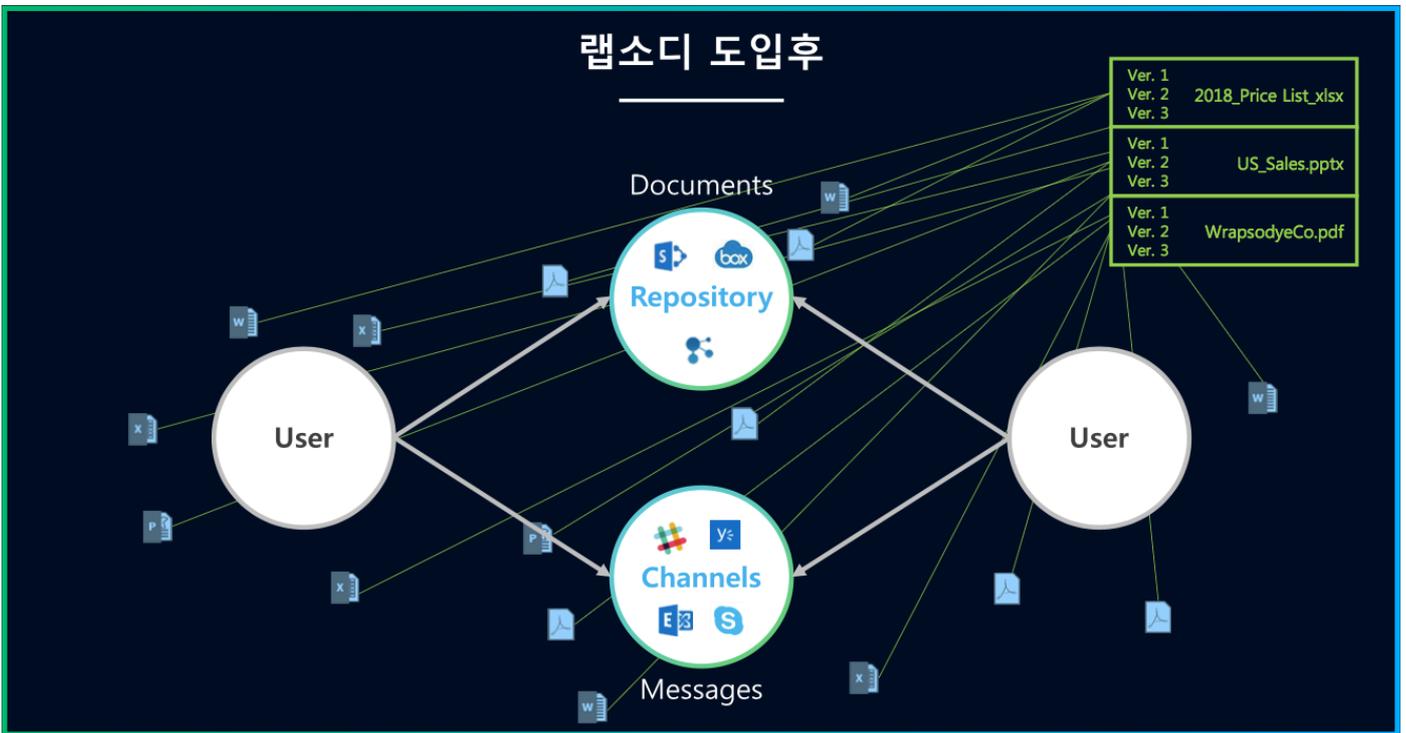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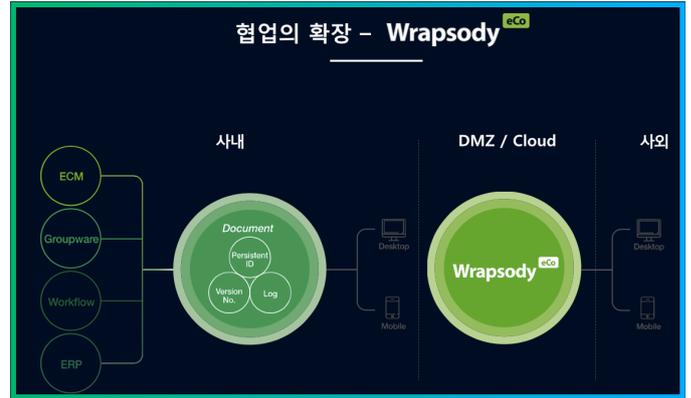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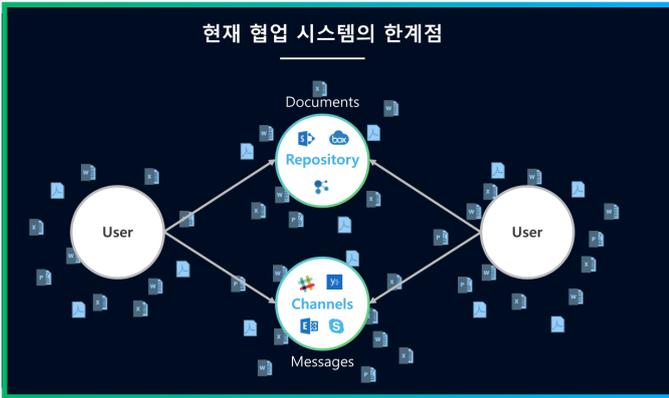
'랩소디'의 특징 중 하나는 파일 안에다 문서에 대한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통 문서관리시스템은 파일을 올리고 댓글로 의견을 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파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댓글까지 인수인계 할 수는 없다.

'랩소디'는 파일 안에 코멘트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신입직원은 문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직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볼 수 있다. 문서가 생성된 과정과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는 파일기반의 협업시스템을 위한 기반이다. 문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랩소디'는 관리자의 생산성도 뛰어나다. 기존의 문서관리시스템은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공지, 최신문서 업데이트 등 지속적으로 관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랩소디'는 사용자가 문서를 만들면 태그에 따라 자동으로 포털 메인화면에 업데이트 된다. 관리자가 일일이 포털 메인화면을 편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내 작업공간 ▲스마트클리너 ▲사용분석 ▲타임라인 등의 신규 기능이 '랩소디'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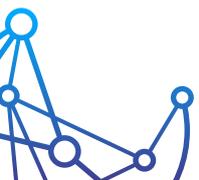




내 작업공간은 내가 봐야할 문서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클리너는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서, 나만 보는 문서, 쓸데없이 만들어진 문서 등을 분석해서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분석기는 만들어진 문서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타임라인은 현재 문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파수닷컴은 회사의 외부의 파트너들과도 문서로 협업할 수 있는 버전인 '랩소디에코'도 제공한다. 그룹을 만들어서 외부인도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다. 역시 파일 단위로 채팅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며, 문서 하나가 전달되면 어느 워크그룹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진화되는지,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전했는지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파수닷컴 엔터프라이즈 다큐먼트 플랫폼 사업본부장 김규봉 상무는 "이전에는 문서관리 시스템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문서관리 자체보다는 협업, 커뮤니케이션, 팀워크가 중심이 되어 한다"면서 "랩소디는 문서 기반의 협업 관리, 거버넌스, 보호를 위한 기업 문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By**





#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진화한 '스패로우'



최근 파수닷컴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업분부는 '스패로우'라는 이름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스패로우(Sparrow)'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위한 소스 코드 정적분석 도구로 시작했다. 10여년 이상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내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장을 견인해왔다.

'스패로우'는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처음 개발됐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품질도구로 시작했으나 2013년부터 시큐어코딩 도구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공통평가기준(CC)인



증을 획득했고,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시큐어코딩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로는 드물게 가트너 매직퀵드런트에도 등재됐고, 클라우드 버전도 출시했다. 최근에는 정적분석을 통한 시큐어코딩 도구에서 동적분석, 자가방어 등을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통합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전체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침해사고의 75%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플리케이션 해킹 시도의 빈도도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흔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의 실수로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발자의 실수만이 원인은 아니다. 아키텍처가 잘못 설계됐을 수도 있고, 요구사항 자체가 보안 위협을 내재한 것일 수도 있다. 테스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일수 스페로우 대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서는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에서 보안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사항 정의-설계-구현-테스트-운영·유지보수 전 단계에서 보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수닷컴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도구는 ▲스패로우 SAST ▲스패로우 DAST ▲스패로우 RASP ▲스패로우 인터랙티브 허브로 구성돼 있다. SW 품질 도구는 ▲스패로우 SAQT ▲스패로우 SQLCC ▲스패로우 서비스 테스터(2분기 출시예정) 등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서비스로 ▲스패로우 온 클라우드(정적분석, 동적분석) ▲교육센터(시큐어코딩 레슨, 스페로우 사용법) ▲진단서비스(설계진단, 소스코드진단, 모의해킹) 등을 제공한다.

SW 개발 단계에서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하는 정적분석 도구에서 시작해 SW 테스트·운영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동

적분석 도구, 자가방어 솔루션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큐어코딩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놨다.

장일수 스페로우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공간을 할당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서비스형인프라(IaaS)를 통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스코드 탈취 가능성이 없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A 금융사의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타사의 시큐어코딩 도구를 점검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발이 끝나면 점검도구를 돌린 후 다시 돌아가 고쳐야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또 담당자에 의존하다보니 소스코드가 누락되거나 결과도출이 안되는 문제도 있었다.

A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패로우’를 도입했다. 스페로우는 전 개발자가 개발단계에서 사용하도록 했고, 자동으로 형상관리와 연결되도록 했다. 개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고, 부정사용도 자연스럽게 방지됐다. 이를 통해 개발보안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고, 보안취약점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제품 하나로 승부하는 기업이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 “보안 설계부터 가이드라인 제공,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제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가 될 것”

중국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였다. 석유는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석유가 아닌 ‘데이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한대로 생성되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분석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에 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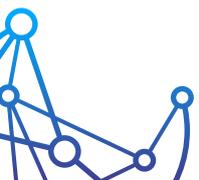
그러나 데이터 활용에는 위험요소도 있다. 바로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보듯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개인정보 활용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활용을 주저할 수는 없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 손쉽게 비식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면이 있고, 기업들은 비식별 관련 지식이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시간과 비용, 프로세스와 경험도 부족하다. 일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파수닷컴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컨설팅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비식별화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리스크를 진단한다. 이후 비식별 조치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고 적정성 평가에 대응한다. 비식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신기술 법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상품으로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식별 조치 지원 컨설팅 ▲재식별 위험 진단 ▲컨설팅 비식별 전략 수립 컨설팅 등이다.

비식별 조치 지원 컨설팅은 비식별 경험과 지식이 없는 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 모 은행이 파수닷컴 비식별 조치 지원 컨설팅을 통해 거래정보를 비식별화 했다.

재식별 위험 진단은 비식별을 자체적으로 한 기업이 안전성 여부를 파수닷컴에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식별화 했어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다시 식별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식별 위험성을 진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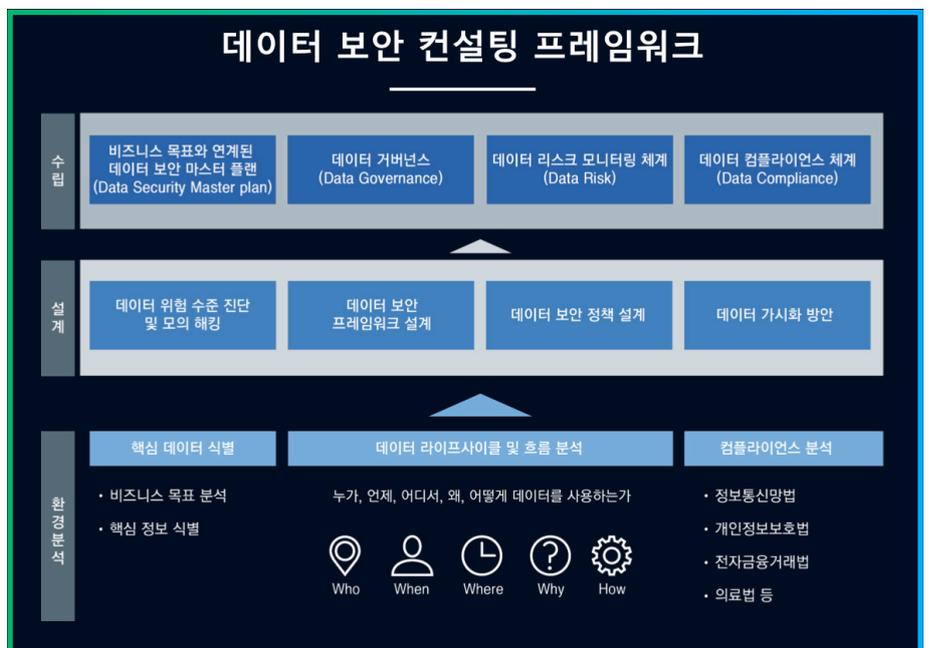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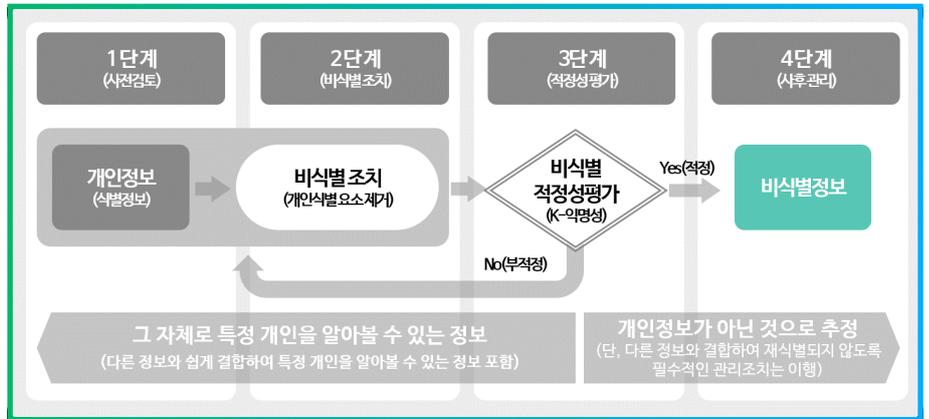
비식별 전략 수립 컨설팅은 비식별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하는 서비스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세울지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한다. 모 병원의 경우 전자이무기록(EMR) 데이터와 임상연구데이터웨어하우스(CRDW) 데이터를 연계해 사용하는 전략을 파수닷컴과 함께 수립했다.

컨설팅을 통해 비식별화 전략과 방법론이 정해지면 솔루션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 파수닷컴은 '애널리틱 DID(AnalyticDID)'라는 비식별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식별화할 수 있는 자동화 플랫폼으로,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이드라인을 100% 준용한다. 데이터의 효용성을 보장하고 비식별 작업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최고의 속도와 용량을 제공한다.

'애널리틱DID'는 2016년 4월 처음 출시했으며, 현재 3.0 버전이 출시돼 있다. 3.0 버전에는 익명화, 가명화, 순서보존 암호화, 상하단 코딩, 클러스터링, 인메모리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파수닷컴은 비식별화뿐 아니라 '안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도 제공한다.

파수닷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정보보안전문서비스 기업이다. 전체 82%



이상이 중급 컨설턴트인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보안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시스템 진단 및 모의해킹,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 컨설팅, IT서비스관리(ITSM) 컨설팅 등까지 제공한다. 단계별 정보보안 컨설팅 진행 모델, 데이터 보안 컨설팅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화페어와 같은 신기술 보안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윤덕상 파수닷컴 컨설팅 사업본부장은 "파수닷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전문업체"라면서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By**





# Fasoo Digital Intelligence 2018



**By** **BylineNetwork**

발행 | 바이라인네트워크  
배포 | <https://byline.network/>  
취재/글 | 이유지 기자 yjlee@byline.network  
심재석 기자 shimsky@byline.network  
문의 | [byline@byline.network](mailto:byline@byline.network)

Copyright © 2018 BylineNetwork

**SPECIAL REPORT**  
**BylineNetwork**